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경영학과	이름	최XX
파견국가	스웨덴	파견도시	외레브로
파견대학	외레브로 대학교 (Orebro University)	파견기간	2021/08/19-2022/01/14
귀국여부	2022년 1월 30일 귀국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캠퍼스 건물이 높지 않고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학과에 따라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건물은 다르지만, 각 건물 내에 학생들이 쉬거나 조별과제, 혹은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스스로 공부하고 싶을 때에는 어떤 건물이든 자유롭게 들어가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외레브로 대학교는 교환학생을 위한 OT 프로그램이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어떻게 보면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기간동안 교환학생들을 각 그룹에서 도와주는 Fadder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지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저런 팁을 얻는 등 현지 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OT기간 동안 교환학생들끼리 많은 활동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게 되는데, 보통은 이 기간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지만, 그 외에도 친구를 사귄 기회는 많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p>
2021-1학기 수업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외레브로 대학교는 보통 4-5주 동안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강하는 형태로 학기가 진행됩니다.</p> <p>1. Language Structure 첫번째로 들었던 수업인데, 현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두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어에 관련된 음성학, 언어구조, 문법 등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수업인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문법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험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이전에 치러졌던 시험문제들이 업로드 되어있어 그 문제를 참고로 공부했습니다. 수업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이 학생들을 세세하게 지도하시는 편이고, 과제도 전혀</p>

없었고, 교수님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쉽고 즐겁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의 영어수준을 점검하고, 마음 편하게 첫 수업을 듣고 싶다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수업입니다.

2. *Gender Equality and the Nordic Welfare*

두번째로 들었던 수업인데, 양성평등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탐구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여러 교수님이 돌아가면서 수업과 세미나를 담당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한번은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한번은 소규모의 그룹끼리 해당 수업에서 내주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토론한 뒤 세미나 시간에 발표하고, 다른 그룹들의 답변이나 교수님의 생각에 관련하여 끊임없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시험은 없고, Writing과 세미나 참석 여부로 성적이 결정됩니다. 매주마다 세미나 전에 읽어야 할 논문의 개수가 꽤 많고,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매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세미나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수업이었습니다.

3.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Logistics*

전공으로 인정받으려고 들었던 수업입니다. 국제 무역과 관련된 지식을 탐구하는 수업입니다. 교수님 성함은 Martin Hunter이셨고,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국제 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는 건 처음이라 꽤나 어렵게 느껴졌던 수업입니다. 조별과제가 있는 수업이었고, 시험은 서술형으로 8-10문제쯤 출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4. *Business Administration, Supply Chain Management*

이 수업 역시 전공으로 인정받으려고 들었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수업 없이 수업 게시판에 교수님이 업로드한 자료들과 수업 교재를 읽고 매주마다 업로드 되는 수업과제 레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업입니다. 조별과제가 있는 수업인데, 이 시기에는 크리스마스 연휴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유럽 국적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상의해서 조별과제를 끝내곤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3주 정도 진행되는데, 약 15-18명 정도의 교환학생을 한 그룹에 배정하고, 배정된 그룹에서 3주 간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3-4명 정도의 Fadder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각 그룹마다 배정되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교환학생들의 전반적인 스웨덴 생활을 도와줍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는 캠퍼스 투어, 시내 투어, 스웨덴식 요리 수업, 저녁 만찬 등 전체적으로 더불어 하는 활동, 그리고 각 그룹끼리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Fadder들은 처음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마중나와서 기숙사를 안내해주고, 이것저것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는 International Office인데, 오리엔테이션이나 교환 학기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면 이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8월 중반에 도착했을 때부터 낮에 반팔을 입어도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였고, 밤에는 추워서 플리스를 입거나 전기매트를 켜고 자곤 했습니다. 가을 학기의 경우에는 갈수록 추워질 일 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자전거를 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옷보다도 장갑이나 모자, 목도리를 더 철저히 착용하곤 했습니다. 겨울이 한국과 크게 다를 점은 없어서 한국에서 입고 다니는 대로 입고 다니곤 했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인종 차별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어떤 스웨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일단 저를 스웨덴 사람으로 가정하고 스웨덴어로 말을 건네고, 영어로 대답하더라도 친절하게 상대해 주었습니다. 요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새벽까지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걱정되는 점이 있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외레브로 대학교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기숙사가 존재하는데, Oak, Red house, Studentgatan이 있습니다. Oak와 Red house는 화장실과 욕실, 부엌, 거실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형태의 기숙사이고, Studentgatan은 한 사람이 쓰는 방에 화장실, 욕실이 포함되어 있고, 부엌과 거실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형태의 기숙사입니다. 제가 거주했던 기숙사는 Studentgatan이었습니다. 최대 8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Corridor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각 Corridor마다 본인의 기숙사 건물과 Corridor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Studentgatan에 거주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다른 기숙사에 비해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학기 초반에는 함께 Corridor를 공유하는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규칙을 정하곤 하는데, 규칙은 대부분 돌아가면서 부엌 청소하기, 친구들을 부를 때에는 미리 공지하기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하에는 빨래를 할 수 있는 빨래방이 있는데, Corridor 출입할 때 쓰는 키로 빨래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시간에 빨래방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가끔 빨래 시간을 예약하기에 뽐뽐할 때가 있었는데, 빨래를 하는 동안에는 다음 스케줄을 바로 다시 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빨래를 하면서 다음 날짜를 예약해놓곤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스웨덴은 외식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외식보다는 주로 직접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도보나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에 Ica Maxi, Willys, Coop 등 대형 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장을 보기에 편리했습니다. 가끔 한식이 먹고 싶을 때면 주변에 있는 아시안 레스토랑에 하나씩 있는 비빔밥을 먹거나 시내에 있는 아시안 마켓에 가서 한식 재료를 구매해와서 요리를 직접 해먹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아시안 마켓에는 라면, 떡볶이 소스, 떡 등 점차 많은 한식 재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식재료를 구하기에 편리했습니다.</p>

교통	<p>기숙사에 거주했기 때문에 따로 통학에 있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디. 시내를 오갈 때에는 교통수단이나 자전거를 주로 이용했는데, 버스는 1시간 이용권이 26SEK, 한화로 약 3,400원 정도입니디. 왕복으로 이용하려면 약 6,800원 정도여서 시내를 오갈 때에는 주로 자전거를 이용했습니다. 다른 도시를 오가며 여행할 때에는 주로 기차나 시외버스를 이용했는데, 기차 어플을 통해 예매할 때에는 비용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스톡홀름을 갈 때에 편도로 200SEK, 한화로 25,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핀에어 왕복권	998,300원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OT 비용</p>	0원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도 간단한 의료보험을 지원해주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에서 장기해외체류자 보험을 들고 갔습니다.</p>	263,000원 (약 5개월 기준)
숙소	기숙사 (한 학기)	약 2,600,000원 (20,000SEK)
식비	한 달 기준	300,000-400,000원
교통비	한 달 기준	약 20,000원
책값		
기타1	거주허가 신청	약 190,000원 (1,500SEK)
기타2		
합계		약 7,000,000-8,0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교환학기 동안 제일 아쉬움을 느꼈던 점은 제 영어실력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타지에서 혼자 살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스웨덴에 가보니 스웨덴 사람들은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했고, 학교에서는 같은 교환학생인데도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친구들이 많아 깊은 대화를 나누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한식 재료를 챙겨가는 점에 있어서는 현지에서 팔지 않는 것 위주로 사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지 마트에서도 쌈장, 불고기 소스, 고추장, 김치 등을 팔고 있고 아시안 마트에서는 위에 적은 것처럼 다양한 재료가 새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에 굉장히 힘들 만한 것이 아니라면 와서 구매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또 현지에서 무엇을 구매하러 가든, 한국에서 발급한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외출할 때면 여권이나 국제운전면허증 등 국제적으로 신분이 증명 가능한 신분증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레브로는 캠퍼스가 매우 크고 주변에 무언가를 하러 갈 때에도 멀리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 요금이 매우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상태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구매하고 배워서 잘 활용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원래 2020년도에 외레브로 대학교에 파견 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한 학기가 밀리게 되었고, 그 다음 학기에는 거주 허가 문제로 파견이 또 한 학기 밀리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게 1년 밀리게 되면서 이런저런 부담이 생겨서 포기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갔다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점,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한 부엌을 공유한다는 점이 처음에는 걱정스럽고 신경 쓰이는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 5개월 간 함께 생활하면서 국적이 모두 다른 친구들의 생활방식에서 좋은 점도 배우고, 한국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며 편안하고 즐겁게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다 보니 독립심도 매우 강해졌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생활이 너무 즐겁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원래 계획했던 2학기에서 1학기로 줄어든 점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1년을 넘게 붙들고 고생했던 시간이 다 잊힐 만큼 행복한 5개월이었고, 만약 다음에 또 해외에 나갈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tudentgatan



방에서 보이는 창 밖 뷰



외레브로 시내



외레브로 시내



외레브로 성



Willys 가는 길